



#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육계농가의 소득안정 과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에 노력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수입 닭고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육계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년 1월 옥수수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4%가 상승하였으며, AI 등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감소시켜 육계농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축산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최근 축산경영 학회세미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계가격은 해가 거듭되어도 불안정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소득은 가격과 경영비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가 타 축종에 비해 가격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은 질병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상의 불안정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국내 육계가격은 닭고기 수입량 보다 국내 출하물량(도계물량)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하물량이 1% 증가할 때마다 가격은 1.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량이 1% 증가할 때마다 0.14%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육계 생산량을 보면 1980년대 이후 생산 변동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육계 산지가격과 사료비가 당해연도 종계 수수를 결정하는데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계수수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산지가격이 1% 상승시 0.6% 증가하고 사료가격이 1% 상승할 경우 0.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금년 사료가격 상승과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종계 사육수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육계사육수수는 종계수수가 1% 증가할 경우 0.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경영비와 관련해서는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대로 낮아진 반면 병아리 가격과 방역비, 감가상각비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모가 클수록 경영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육계는 소득율이 낮아 가격과 경영비가 조금만 변해도 소득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이 1% 상승하면 소득은 5.9% 증가하며, 경영비가 1% 상승하면 소득은 5.7%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육계를 하면서 경영비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 병아리 비용 절감 및 종계 생산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닭고기 품질과 급화 및 안전성 확보,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닭고기 브랜드 가치 제고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육계업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번쯤은 자체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 현실 무시한 왜곡보도로 양계산업 피해 심각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 아쉬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우리는 방송에 대한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닭들이 매몰되고 시 감염 사망자 발생, 시로 인해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 등이 방송매체를 타면서 양계산업은 지옥의 나라로 떨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물론 소비홍보를 내보내면서 양계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언론이었다.

최근 기사실 통폐합 내지는 폐지론이 최고 통치권자로부터 흘러나올 정도로 언론은 우리나라 모든 산업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오고 있다. 언론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신속한 보도, 흥미위주의 보도가 다루어질 경우 자칫하면 한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들면서 양계에 관련된 보도가 자주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협회나 생산자들이 이미 방송사실을 알고 대처하더라도 본래 기획했던 내용을 반복하거나 방송취소를 하는 예는 거의 없다. 더욱이 그 내용이 전문가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가 다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25일 KBS에서 방영되었던 환경스페셜 '산란기계 닭'은 그 수위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양계인 및 관련인들을 분노케 했다.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이 방사된 닭에서 나온 계란보다 신선도와 품질면에서 떨어지는 실험을 한 것은 산란주령과 산란일자를 감안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며 육계와 산란계, 종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이 설명과 화면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부리자르기는 카니발리즘 방지는 물론 사료 허실 방지를 위해 필요함에도 이러한 내용없이 부리가 잘못된 닭을 마치 디비킹을 잘못하여 생겨난 것인양 비추었고, 영양제제가 급수기에서 흐르는 것을 마치 항생제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오인시켜 모든 닭들이 항생제 투성인양 보도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60분간 방송을 내보내면서 잘못된 내용은 10여군데 이상이 발견되었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양계분야에는 문외한인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애초에 동물복지라는 한 방향만을 기준잡고 기획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이며, 담당 PD도 양계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였다. 인터뷰에 응한 농장주도 문제가 있다

고 보여진다. 양계산업을 위한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인터뷰는 삼가야 할 것이다.

지난달 두 곳의 공중파 방송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계란을 주제로 여과없이 방영되는 가 하면 앞으로 언제 항생제 등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를 걸고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방송은 앞으로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작가나 PD들로부터의 방송기획, 방영 또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추진방향 설정 국산 차별화, 생산성 향상, 농가 안정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에 따른 양계분야의 추진 방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및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용여부와 추진 계획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양계산업 대책에 대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품질 고급화를 통한 외국산과의 차별화 실현이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국내산 브랜드 완성을 목표로 2008년 222억을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육계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업체(현재 5개소)를 확대하고, 계란을 브랜드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며,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사육·유통 단계의 HACCP 도입하며, 자조금 홍보예산을 활용한 국산 가금축산물 우수성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이다. 최적의 사육기반 마련으로 생산비를 절감키 위한 목표를 세우고 2008년 신규로 15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 내용은 시설장비 현대화 및 우량종축 공급으로 가축·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 농가 사육시설 개선, 우량 종축공급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종란,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의무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농가경영 안정도모이다. 농장의 재해·질병으로부터 재생산 가능한 제도 정착을 목표로 2008년 47억원을 투자하여 가축공제 활성화, 종계 DB구축, 수출 전략품목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에서 요구한 사항중에는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행, 양계농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 전업화 또는 폐업농가 지원, 계란집하장 및 난가공공장 확대 등이 수용되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부화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의 실익이 낮아 규제 강화보다는 업체의 지도 및 감독 강화를 통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미 FTA가 아직 축산단체들의 반대는 물론 비준절차 등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에서의 양계산업 대책이 얼마나 농가에 실효를 가져올지 자못 기대가 되는 바이다. **양계**